

# 기동전단 운용에 따른 한국 해군의 해상 기동군수지원체계 발전방향

정관영\* · 조범상\*\*

## 목 차

- I. 서론
- II. 군수지원체제에 관한 개념적 고찰
- III. 미래의 해전양상에 따른 군수지원 환경 변화 전망
- IV. 기동전단 운영에 따른 군수지원체계 한계 분석
- V. 기동전단의 해상 기동군수지원체제의 발전방향
- VI. 결론

## I. 서론

고대는 물론 현대전쟁사에 있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효과적인 군수지원이 항상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군수지원 실패는 반드시 전쟁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Department of the Navy, 1995: I). 특히, 현대전에서 군수지원은 전쟁수행을 위한 힘의 기초이자 전쟁수행능력 그 자체로까지 이해되고 있으며, 그 양상도

\* 전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교관(전임강사), 現) 해군대학 정규과정 학생장교

\*\* 現) 해군사관학교 작전학교관(전임강사)

정보전, 속도전과 더불어 대량물량에 의한 군수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 해군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양해군 건설”의 기치를 들고 원해에서의 장기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2010년 2월 1일 기동전단의 탄생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기동전단은 대북위협 대처와 더불어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표로 창설되었다. 이러한 기동전단이 첨단 함정 및 탑재 무기체계를 보유한 가운데 원해에서 장기 단독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수지원 소요에도 기동전단 운영개념과 적합하게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상의 상황과 군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력과 예산을 투자하는 데는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현대의 전쟁양상 및 무기체계의 변화, 그리고 해군의 미래 전략과 현 시대적인 상황은 군수분야에 대한 과거 행태의 답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래전 양상에 비추어 기동전단의 역할과 임무에 맞는 해상 기동군수지원체제의 한계와 요구되는 능력을 조망해 보고, 향후 기동함대의 모체인 기동전단 운용개념에 적합한 해상 기동군수지원체제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동전단의 원해작전은 해상 기동군수체계의 구조적, 행태적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동전단 운용에 따른 한국 해군의 해상기동군수지원체제의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있어 기동군수지원전력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조적인 측면으로, 기동군수지원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행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 3장에서는 군수지원체제에 관한 개념 고찰과 미래 해전에서 요구되는 군수지원 환경을 전망하고, 4장에서는 기동전단의 임무와 역할을 미래 해전 양상에 비추어 기동함대를 목표로 기동전단을 운용함에 있어 수반되는 군수지원 요구능력을 구조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에서 도출한 뒤, 5장에서 기동전단의 해상 기동

군수지원체제 발전방향을 구조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동전단이 창설된 시점에서 해상 기동군수지원체제의 발전방향을 전력발전의 구조적 측면과 군수지원운영의 행태적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원해에서 국익추구에 기여할 수 있는 해상 기동군수지원 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 II. 군수지원체제에 관한 개념적 고찰

### 1. 군수지원의 개념

군수란 용어가 오늘날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8세기 조미니(A. H. Jomini) 이후였다. 조미니는 나폴레옹 예하에서 참모 경험을 토대로 당시의 군사이론을 저술하였는데, 그의 저서 '전쟁술(Precisde l'Art de la Guerre)'에서 '군수(logistics)'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조미니는 이 책에서 전쟁술을 전략·대전술·군수·공학·소전술의 5개 분야로 분류한 뒤 군수를 '부대이동에 대한 기술'이라고 정의했다(A. H. 조미니 저, 이내주 역, 2005:11).

미국은 남북전쟁이후 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880년대 들어 해군의 마한(Alfred T. Mahan)이 산업동원과 전시경제를 거론하면서 군수라는 용어를 미 해군내에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1917년 미 해병대 소오프(G. C. Thorpe) 중령은 전쟁수행의 3대요소로 전략, 전술 및 군수를 강조하고, 군수를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군수에 단순한 보급과 수송 이외의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시켰다(미 해군대학(해군본부 역), Naval Logistics, 1964:5).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클레스(Henry E. Eccles) 제독은 소오프의 전쟁수

행 3대 요소에 ‘정보,’ ‘통신’을 포함시키고, 군수를 국가경제에 있어서는 군사요소이며, 군사작전에서는 경제적 요소로서 국가경제에 연계하는 연속적인 연결고리 또는 교량으로 묘사하는 개념을 정립하였다(이월형, 1997:2).

한국 해군에서 사용하는 현대적 군수의 개념은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 연구개발, 생산 및 조달, 보급, 정비, 수송, 시설, 근무 분야에 걸쳐 인원, 장비, 물자, 자금, 시설 및 용역 등 모든 가용자원을 효과적, 경제적,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해군본부, 2007a:1-3). 군수는 모든 가용자원을 효과적, 경제적, 능률적으로 통합 운용하여 작전 수행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단순한 군수물자의 보충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지속지원<sup>1)</sup>하여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수의 개념에 따라 군수지원 개념은 부대운영 유지 및 작전활동에 필요한 자원, 즉 보급, 정비, 수송, 시설, 근무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적기, 적소, 적량의 지원 보장에 목표를 두고 용병술 체계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신영환, 2008:10-11). 군수지원과 용병술 체계와의 관계는 먼저 전략적 수준에서의 군수지원은 국가의 군사전략을 실행하기 한 부대 전개와 운용을 망라하되 인적 물적 자원의 획득, 공중 및 해상 수송 관리, 작전 전구에서의 지원 등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전략적 수준과의 연계와 전술적 수준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둔 작전전 수준의 군수지원은 전구 내 작전부대의 지원을 통해 전역에서의 작전지속성 보장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전술적 수준에서의 군수지원은 전투단(battle group) 또는 기동부대(task force)의 지원에 중점을 둔다(Department

1) 지속지원(sustainment)이란 국가목표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이를 수정할 때까지 전투나 작전을 수행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인사, 군수 및 기타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신영환, 2001:2).

of the Navy, 1995:8-9).

따라서 군수지원은 전장상황을 고려하여, 장비 및 물자, 시설, 근무에 대한 소요를 전투부대 중심으로 사전에 예측하고 확보하며, 소요발생에 따라 전 지원요소를 통합하여 적기·적소에 적량을 지원함으로써 전투부대의 전투지속능력을 보장하여 ‘전투부대가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석철, 2008:44).

상기 군수지원 개념을 고려해 볼 때, 결국 군수지원은 전투부대 지휘관으로 하여금 오로지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근접된 군수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2)</sup> 이러한 개념들은 창설된 기동전단이 원해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지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2. 군수지원체제의 개념

### 1) 근접 군수지원체제

군수지원체제란 군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급, 정비, 수송, 시설, 근무 등 제반 군수활동을 중심으로 군 기구(조직)를 편성하여 지원하는 체계이다.<sup>3)</sup> 군수지원체제는 인원, 조직, 시설, 훈련 및 교육과 작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군수지원은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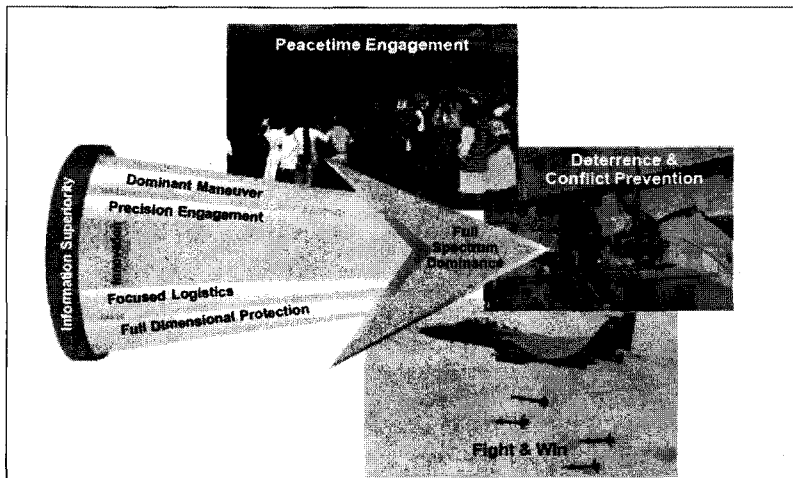
---

2) 군수지원은 전투에서 승리를 목표로 작전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군수지원은 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①집중지원, ②추진지원, ③신뢰성, ④간편성, ⑤적시성, ⑥균형성, ⑦권한성, ⑧경계성, ⑨경제성의 원칙과 같은 9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원찬권·최봉학, 1989:42-46, 해군본부, 2003: 2-10~14).

3) 체제(system)란 전체의 목표를 위하여 상호작용하며 어떤 종류의 경계에 의하여 그 환경으로부터 구분되는 구성요소나 단위의 집합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구성요소로서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이 상호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덩어리로서 전체를 이루며 주위의 환경과 구분되어 이러한 환경과 부단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곧 체제이다(박재영, 2004:74). 따라서 군수지원체제는 군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군수활동을 조직적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대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장소에 최단기간에 적량의 물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4)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군은 합동작전 차원에서 전 영역 압도(full spectrum dominance)라는 작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확한 장비 및 보급품과 인력을 정확한 장소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을 보장하는 집중적 군수지원(focused logistics)을 핵심수단으로 여기고 있다(U.S. JCS, 2000:24-25). 미 해군도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정확한 지원을 통해 작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군수지원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Department of the Navy, 1995:6). 미군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군수지원체제는 작전지속성 보장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 출처 : U.S. JCS, 2000. Joint Vision 2020, Washington D.C. p. 2.

<그림 1> 미 합동작전 목표와 중요 수단

4) 효율적인 군수운영을 위해서 현대전의 특성에 맞는 지원기구체제가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요소는 ①군수지원 자동처리, ②자원관리 및 가시화, ③현대화된 수송시스템, ④합리적인 군수지원부대 편성이다(김시정, 2009:52-7~8).

## 기동전단 운용에 따른 한국 해군의 해상 기동군수지원체계 발전방향

한국 해군이 구축하고 있는 군수지원체제는 기능화 지원체제, 모항 중심의 근접 군수지원체제, 유사시에는 평시 지원체제를 보강하여 24시간 지원체제를 유지하며 동원지원체제와 한·미연합군수지원체제로 지원된다.<sup>5)</sup>

한국 해군의 군수지원체제에서 ‘기능화 지원체제’ 및 ‘3군 공통 군수지원체제’는 군수지원을 위한 운영적 측면으로, ‘근접군수지원체제’는 군수지원을 위한 기능적 측면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중 근접군수지원체제는 기동화 된 전투수단인 함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군에 필요한 군수지원 형태이며, 이를 통해 실제 가시적인 군수지원이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군은 근접 군수지원을 위한 하드웨어적 요소인 군수지원함정이 전력화되어 있어야 하고, 모항 또는 전진기지에 위치한 군수지원 부대가 근접 군수지원에 적합하도록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요소인 청구, 수불 등 군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 및 정보화 시스템이 필요하며, 지휘 및 명령체통의 단일화 및 강력한 통제행위, 권한의 분배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해군의 근접 군수지원을 ‘목적,’ ‘방법,’ ‘수단’으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목적’은 작전개념을 지원하며, 전투부대에게 충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속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군수지원 소요함정에게 작전해역 내에서 필요한 유류, 탄약, 식량 등을 보급하거나 대체장비, 수리부속, 정비기술요원을 이용하여 정비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고, 작전해역에 위치한 모항과 전진기지의 군수지원 부대에서 재보급

---

5) 기능화 지원체제는 동일종류 또는 유사성질의 업무나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능이 다른 조직에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복과 낭비를 피하기 위해 동일 기능 및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단일 지휘하에 군수지원활동을 중심으로 군수기구를 편성하고 지원계통을 구성하는 체제를 말한다. 3군 공통 군수지원체제는 2개 군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품목은 주 기능을 보유하도록 한 해당 군에서 획득 및 지원하는 체제이다(신영환, 2008:29-30).

또는 전투력 보충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수단’으로는 물자, 정비요소 등을 탑재한 군수지원 함정이나, 고속수송 보급이 가능한 항공기, 전진기지의 군수지원부대 또는 이동지원팀, 함정의 군수 소요를 신속히 수립하여 전파할 수 있는 정보 및 통신체계 등을 들 수 있다 (강광성, 2002:32-34).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근접 군수지원은 ‘전투부대의 작전 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요소를 전장에 근접하여 지원하거나 신속히 이동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근접 군수지원체제는 ‘근접 군수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군수지원 조직, 업무체제 및 수송수단으로 구성된 체제’라는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개념을 통해 볼 때, 새로이 창설된 기동전단의 원해작전 및 장기간 독립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근접 군수지원체제가 필수적 수단임에 틀림이 없다.

## 2) 해상 기동군수지원체제

현대전에서 해군의 특성인 기동성, 융통성 및 공격성 발휘를 위해서는 해상 작전세력이 재보급을 위해 기지에 귀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상에서 근접 지원할 수 있는 근접군수지원, 즉 해상기동군수지원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해상에서 작전하는 함정의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군수지원은 육상기지에서 제공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 있으나, 육상기지만 의존하게 되면 거리, 시간 및 횡수에 있어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세계 각국의 선진해군(미국, 영국 등)은 해상 기동군수지원부대를 건설하여 해상에서 근접 지원함으로써, 해상 작전세력이 육상기지에 귀환하지 않고 해상에서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추세에 있다.

해상 기동군수지원 기본개념은 ‘모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작전하는 해상 작전부대(함정)는 지정된 기간 동안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



인 군수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해상 작전부대들에게 긴요 보급품 및 용역을 해상보급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해군본부, 2004:3-1)

따라서 해상 기동군수지원은 해상 근접 군수지원의 일환으로 군수지원함정, 특수용 주정 및 항공기 등이 함정에 필요한 보급품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항내 또는 해상에서 해상보급 수단에 의해서 제공되며, 그것의 중심점은 근본적으로 육상기지 혹은 전진(해외)기지에 있다. 더불어 해상 기동군수지원이란 단순히 부족한 물자를 보충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함대의 행동범위를 크게 하고, 작전일수를 신장시키며, 함대의 질적인 척수와 속력을 증가시킨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해군대학, 1985:22-23).

### Ⅲ. 미래의 해전양상에 따른 군수지원 환경 변화 전망

#### 1. 미래의 해전양상

미래전은 과거 기동·타격전력을 집중하여 대량제압의 방법을 추구하던 화력, 기동중심의 전쟁수행개념에서 적·아 정보를 파괴·마비, 보호함으로써 적의 전쟁수행체계를 마비시키는 기동마비전 개념으로 전쟁 수행개념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삼만, 2002:1 -13).

이러한 미래전 수행개념을 바탕으로 전개될 미래의 해전양상은 첫째, 정보우세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된 상태에서 우세한 기동으로 공격력을 동시에 집중시켜 적을 신속하게 무력화하고 분산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둘째, 미래 해전은 확보된 해양통제권<sup>6)</sup>을 바탕으로 해군의 결정적인

6) 해양통제(Sea Control)는 한 국가가 자국의 국가이익을 보호 및 증진시키고 국

공격력을 지상전장으로 투사하여 전승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행될 것이다(박창권, 2003:5). 특히 해군이 보유한 정밀타격무기(PGMs)를 이용하여 적의 중심 깊은 표적에 대한 직접타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후방 구분 없이 지상작전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미래해전에서는 상대방이 약점이나 아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을 무력화하는 비대칭전 수행이 보편화 될 것이다.

넷째, 미래해전에서는 전략/전쟁이 목표를 달성 또는 작전 변경 시까지 해당 작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전쟁지속능력과 전구 내 적시·적소·적량의 군수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군수지원체제와 기동군수지원부대가 필요하며, 합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휘통제체제 및 교리/작전 절차 등의 발전이 요구될 것이다.

해전의 목표가 “지상작전에서 우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해군 단독작전에서 육·공군과의 합동작전으로 작전성격이 변모할 것이며, 이는 해군의 임무가 과거보다 훨씬 많아지고 확장됨에 따라 군수지원이 범위와 그 중요성은 증대되어질 것이다(정호섭, 2007:191-194). 따라서 미래의 해전에서는 해상에서 작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상 기동군수지원체제의 소요가 필수불가결하게 증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2. 미래 해전에 요구되는 군수지원 환경

구체적으로 앞서 고찰한 미래 해전양상에서 작전지속 능력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군수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해전 수행개념이 변경되고 한국 해군의 활동영역이 연안에서 주요 해상교통로<sup>7)</sup> 등 원해로 확장되고 있다. 해군의 활동영역은

---

가안전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해양사용을 보장하고, 적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해양사용을 저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해군본부, 2007b:670).

청해부대 운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 연안중심에서 한국의 주요 해상교통로 중 하나인 남방항로<sup>8)</sup>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향후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 발생 시 작전구역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작전의 지속적인 작전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동군수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며, 제3국에서의 군수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신영환, 2001a:119-120).

둘째, 미래해전에서는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 세력이 적과 우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작전템포를 유지하기 위한 속도중심의 군수지원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셋째, 미래의 첨단 무기체계는 더욱 복잡화, 지능화, 고가화 됨에 따라 장비운영유지비가 증가하고, 구성품의 모듈화, 표준화 추세에 따라 부대정비 소요가 확대되고 모듈확보 및 근접 정비지원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넷째, 미래의 첨단 무기체계는 성능이 향상되고 자동화됨에 따라 운용요원은 감소하는 반면, 첨단 무기체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비, 보급, 수송 등의 군수지원 관리분야의 전문인력 소요는 상대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첨단 정밀무기체계가 증가하고 무기체계의 수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정비 및 유지를 위한 기술인력은 많이 필요하나, 민간사회의 첨단 기술인력 부족현상 심화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

7) 해상교통로(Sea Lines of Communications)는 국가의 생존과 전쟁수행 상 필요 확보해야 할 해상 연락 교통로로,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주요 원료를 포함한 교역품의 이동통로이며 유사시 전쟁수행에 필요한 탄약, 군수물자 등의 수송을 위해 필요한 해상보급로를 의미한다(해군본부, 2007b:662).

8) 한국의 주요 해상교통로는 항로의 방향에 따라서 북방항로, 한일항로, 남방항로, 한중항로로 나뉘며, 이 중 남방항로는 제주도 동, 서해안을 거쳐서 동, 남지나해 또는 서태평양으로 향하는 항로로 원유를 비롯한 수입자원의 대부분이 이동하는 항로이다.

## IV. 기동전단 운영에 따른 군수지원체계 한계 분석

### 1. 기동전단의 창설과 역할

2010년 2월 1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창설된 해군 제7기동전단이 원해에서 장기간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부대로 출범했다. 특히 기동전단의 임무·역할은 먼저 대북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쟁억제, 해상교통로 보호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대해적작전 등 국가의 대외정책 지원과 세계 해양안보 협력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는 것도 포함된다(김용호, 2010. 2. 2).



\* 출처 : 김민석, “해군 첫 기동전단 떴다,” 『중앙일보』 (2010. 2. 2)

<그림 2> 기동전단 작전 구역

기동전단은 북한위협에 대해 이제까지 해역함대가 수세적, 방어적 작전을 수행하였던 개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공세적 전력으로 운용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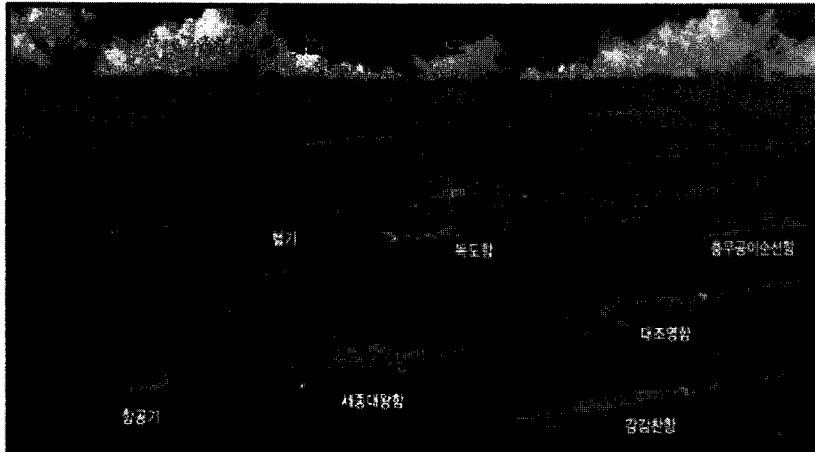
수 있다. 세부 운용 개념으로 적의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여 경보하고 기습공격 세력의 이동과 접근을 거부하며, 적 공격시 공중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하여 지상 주요 자산 및 해역함대 전력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잠수함 전력 등과 함께 적의 주요 기지를 공격하고 봉쇄하기 위한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 상륙작전을 주도하고, 전략적·작전적 중심표적에 대한 타격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해상작전 중심에서 벗어나 지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으로 효용성을 증대시킬 것이다(박창권, 2006:1-31~1-35). <그림 2>은 한국의 주요 해상교통로 중 하나인 남방항로를 중심으로 한 기동전단의 작전 예상 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잠재적 위협에 대한 기동전단의 대응개념은 장차 원거리 대지정밀타격수단을 탑재하여 적의 중심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를 통해 억제전력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또한 기동전단의 능력을 통해 적의 해상 세력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적의 행동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분쟁 발생 위기시 기동전단 세력을 해당해역에 파견하여 해상에서 국력을 현시(Presence)하고, 강력한 방위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분쟁을 억제하고 제한할 수 있으며, 분쟁발생시 신속하게 격퇴하여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하는 것이 기동전단의 국내적 운용개념이다(박호섭, 2008:1-33).

국제적 운용개념은 과거 전통적 군사적 위협 외에 해적, 테러, 재난 구조 등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미 2000년 동티모르 인도적 지원, 2004년 이라크 대테러 전쟁 시 파병물자 호송작전, 2005년 쓰나미 재난 구호, 그리고 2009년 3월 13일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 청해부대 파병 등을 통해 한미 동맹과 세계평화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고, 이러한 임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질 것이다(장석용, 2009:23). 기동전단은 앞서 언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주 전력으로서 기존 한국 해군의 연안중심 운용

개념과는 달리 원해까지 활동해역이 확대될 것이다.



구 분	세종대왕함 (이지스함)	독도함 (수송·상륙함)	문무대왕함 (구축함)	총무공이순신함 (구축함)
길이/폭/배수량	166m/21m/7,60t	198m/31m/14,34t	150m/17.4m/4,30t	149.5m/17.4m/4,00t
최대속력	30kts(56km/h)	23kts(43km/h)	29kts(54km/h)	30kts(56km/h)
최대항속거리	9,900km	18,520km	12,000km	7,400km
승조원	300여명	300여명	300여명	250여명
진수연도	2007년	2005년	2003년	2002년

\* 출처 : 최현수, “이지스함대… 가자 대양해군으로,” 『국민일보』 (2010. 2. 1)

<그림 3> 기동전단 전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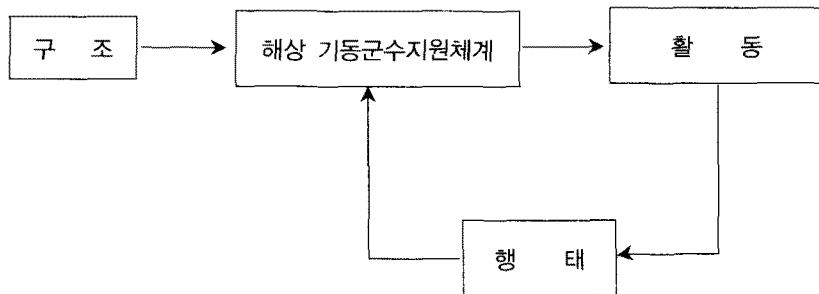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동전단의 세력규모는 장기간 독립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형수송함인 독도함, DDH 및 DDG급 구축함, P-3C 항공기, 1,800톤급 잠수함, 기동군수함 등 입체전력으로 구성된다(전옥신, 2010. 2. 2). 하지만 향후 기동함대의 모체가 될 기동전단을 전투함 전력위주에 무게를 두어 창설한 나머지, 기동전단의 작전수

행 개념을 뒷받침하고 전략적·작전적 목표를 달성 가능하도록 해줄 기동전단에 걸 맞는 해상 기동군수지원체제의 정립이라는 과제를 남겨 두게 되었다.

## 2. 기동전단의 군수지원 한계와 요구능력

미래의 해전양상의 변화와 기동전단의 활동영역이 한반도 해역을 벗어나 원해로 확대됨에 따라 기동전단의 원해작전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군수지원분야에도 필연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해군의 해상 기동군수지원체계는 기동전단의 창설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동전단의 창설과 함께 부상한 한국해군의 해상 기동군수지원체계에 대한 한계를 구조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구조적인 측면은 해상 기동군수지원체제의 성격과 이에 따른 행동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행태적 측면은 활동간 발생한 다종의 성과가 환류 되어 해상 기동군수체제에 영향을 미친다(김열수, 1999:440-441).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해상 기동군수지원체제의 구조와 행태

1) 구조적 측면

[해상 기동군수지원능력] 한국 해군의 기동전단은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원해에서 장기간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입체전력을 갖추고자 출범하였다. 그러나 현재 군수지원함(AOE : Fast Combat Support Ship)으로는 유류와 제한된 탄약 밖에 지원할 수 없으며, 기타 물품 및 장비 지원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탄약을 RAS(Replenishment At Sea)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해상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한 과도한 시간 소요로 유사시 적용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원해에서 기동전단의 지속작전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기동군수지원능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 신속하게 유류와 탄약, 부식 및 수리부속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군수지원함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원해에서 악천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동군수지원 능력(예를 들면, 헬기를 이용한 수직보급지원체제)을 확보해야 한다(신영환, 2001b:102).

[군수지원 속도] 미래의 군수지원은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수송분야에서 크게 대두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군수지원의 속도증대와 적합한 수송수단의 선정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군수지원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수지원체제의 단순화, 통합화, 군수지원의 자동화 등의 방법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송수단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군수지원은 모항을 중심으로 한 지나친 기능의 집중으로 인해 군수지원 처리속도의 지연(특히, 전시 재보급을 위한 다수의 함정 동시 입항시)이 발생하고 아울러 군수지원조직의 비대화 및 정보화의 지연으로 군수지원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신영환, 2001a:115-116).



## 기동전단 운용에 따른 한국 해군의 해상 기동군수지원체계 발전방향

기동전단이 대양에서 장기간 독립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함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동전단의 함정들이 필요불급한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어, 고가의 무기체계 수리부속을 함정별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향후 무기체계의 수리부속이 고가화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자를 수송하기 보다는 고가의 핵심부품 1~2개를 수송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유사시 탄약보급과 같이 긴급하고 신속한 지원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질 것이다. 특히 대양에서 원해작전을 수행하는 기동전단은 기동군수 실시 용이성을 고려하고 단시간 내 적시·적소 군수지원을 위해서는 헬기와 같은 고속 수송수단을 이용한 수직보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 2) 행태적 측면

[제3국과 군수지원협조체계] 대양에서 독립작전을 수행할 기동전단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체제는 기동군수함이 모항만을 중심으로 활동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향후 기동전단은 국익수호 차원의 해상교통로 보호나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고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 국제해양협력 활동 등 활동영역이 크게 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기동전단이 활동하는 해역에서 안정적인 군수지원을 위한 주변국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요구된다. 만일 기동전단 세력이 작전해역에서 원활한 기동군수지원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이는 작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수의 다국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동전단 전력의 경우 해상에서 유사시 손상장비 수리 및 부족장비 보충을 위해 추가적인 군수지원 소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 장비고장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서 제3국과의 원활한 군수협력 방안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신영환, 2001b:103).

[함 자체 정비능력] 원해작전 수행시는 근접정비지원이 제한되므로 함정 자체 정비능력 확보가 필요하다.<sup>9)</sup> 현재의 야전정비급 정비내용이라도 부대정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함정 자체 정비능력 확보는 함정 무기체계 및 장비가 고도화, 첨단화됨에 따라 현재의 부서관 중심의 부대정비체계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정비체계의 수정이 요구된다.

## V. 기동전단의 해상 기동군수지원체제의 발전방향

### 1. 구조적 측면

#### 1) 기동전단 임무수행에 적합한 해상 기동군수지원전력 운용

현대전 양상이 총력전, 단기속결전, 기동전 및 마비전 등의 양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다 많은 군수지원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쟁 초기단계에 전쟁물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전방해역의 주요 항만 봉쇄와 지원시설의 파괴로 인하여 육상을 통한 근접 군수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해상 작전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보장을 위해서는 직접 해상에서 근접 군수지원을 할 수 있는 기동군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당위성에 따라 한국 해군의 실정에 부합될 수 있는 해상 기동군수지원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평시에 다목적 군수

---

9) 근접정비지원이란 고장장비에 대한 후송의 부담을 없애고 신속하게 장비를 복구할 수 있도록 2단계 정비(야전정비) 능력을 갖춘 부대가 가능한 한 입고정비를 지양하고 전투부대에 근접하거나 장비가 고장난 현지에서 정비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국방부, 1996:211).

## 기동전단 운용에 따른 한국 해군의 해상 기동군수지원체계 발전방향

지원함에 의존하는 단순한 보급품 지원개념에서 탈피하여 해상 작전세력의 기동성,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급품을 비롯한 용역까지 지원범위를 확장하고, 아울러 헬기를 이용한 수직보급 등 입체적 지원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념이 발전되어야 한다.

해상 기동군수지원부대의 작전요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군수지원함은 오늘날 전쟁양상, 무기체계, 소요부대의 소요 변화에 따라, 다양화, 전문화 그리고 종합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군수지원함은 해상 작전세력의 직접적인 보급 및 용역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그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반면, 현재 우리 해군이 1990년 이후 해군력 증강과 함께 군수지원함(AOE)을 건조하여 운용중인 군수지원함은 종류가 단순할 뿐만 아니라 소형으로서 군수지원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기동함대를 목표로 대양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할 기동전단에 대한 지원 고려시 보다 대형화, 현대화된 군수지원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확보해야 할 군수지원함은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화물이송체계와 더불어 현대화된 물류취급 시스템을 함정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수직 보급을 위한 전용 군수물자 보급헬기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상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탄약, 유도탄을 제공할 수 있는 탄약지원함과 함정의 전투력 복원과 소형함정의 모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리지원함 등 특수목적 함정의 확보가 요구되며, 예인 및 구조 지원을 위한 지원함의 능력보강 및 추가확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군수지원 속도향상 위한 체제 및 전력 운용

군수지원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군수지원의 빠른 반응시간으로 인하여 물자의 소요량을 줄일 수 있다. 즉 군수지원부대와 피지원부대간의 물자흐름 및 군수근무지원의 경로를 단순화하고, 중복요소의 제거 및

소요시간의 단축을 통해 수요자에 대한 효과적인 군수지원 및 보급경로상의 재고를 절감할 수 있다(장기덕·이남용·백재욱, 1996:107-108).

기동전단에 대한 군수지원은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수송분야에서 크게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군수지원의 속도 증대와 적합한 수송수단 선정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군수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수지원체제의 단순화, 통합화, 군수지원의 자동화 등의 방법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송수단이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장기덕·이남용·백재욱, 1996:537).

신속히 수송할 수 있는 수단만 확보할 수 있다면 함정을 비롯한 각 운영부대에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이로 인해 군수지원 부대마다 일정량을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기체계의 수리부속이 고가화될 것이기 때문에(신영환, 2008:72-75) 많은 양의 물자를 수송하기보다는 고가의 핵심부품 1~2개를 수송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특히 기동함대를 목표로 한 기동전단을 창설하여 운용중인 한국해군의 경우 연근해 작전보다는 원해작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대양에서 기동군수 실시 용이성을 고려하고 고기능 소량 품목에 대한 적시·적소 군수지원을 위해서는 헬기와 같은 고속수단을 이용한 수직보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헬기에 의한 수송 등 고속수송수단 확보를 통한 속도중심의 군수지원체제의 수행은 기동전단이 효과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2. 행태적 측면

### 1) 제3국과 군수지원협조체제 강화

선진국 해군과 같이 발전된 해상 군수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

## 기동전단 운용에 따른 한국 해군의 해상 기동군수지원체계 발전방향

한국해군으로서는, 군수지원체제의 모든 요소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완비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및 제3국과의 군수지원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앞에서 제시한 발전방안과 병행하여 검토 및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저 제3국과의 군수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한국의 기동전단이 주로 활동하게 될 동남아의 해상교통로 주변국 및 인도양 및 아덴만 주변국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의 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동전단에게 필요한 유류, 청수 및 정비지원도 받을 수 있는 상호지원협정이 체결된다면 기동전단의 작전지속능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고, 그만큼 국가이익 추구를 위한 한국해군의 해외 활동역량이 확대되어 질 것이다(신영환, 2001a:123-124).

현재 한국은 <표 1>과 같이 체결된 제3국과의 협정은 국가별 상호 군수지원 항목이 상이하고 전반적인 군수지원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동함대를 목표로 기동전단이 창설된 시점에서 동남아시아 해역과 인도양, 아덴만 해역 등에서 안정된 작전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군수지원능력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3국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표준(안) 정립을 통한 개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국가의 확대가 필요하다. 협정 표준(안) 제정에 있어서 지금의 물자 중심의 협정에서 수리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국가도 한국 해군이 도입한 무기체계 국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해군은 최근 국내 개발되고 있는 무기체계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도입 대상국가도 협정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기동전단이 활동가능한 각 해역별로 해외군수기지를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정체결도 필요하다. 과거 일본이 싱가포르와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기지를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신영환, 2001a:124), 현재 중국과 인도가 인도양을 둘러싸고 해군기

지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정용환, 2010. 3.26).

<표 1> 제3국과의 군수지원협정 체결 현황(8개국)

국 가	협 정 명	체결일자	비고
필리핀	- 한·필리핀 국방부간 군용기 합정 상호 방문시 군수지원에 관한 시행각서	'98.11.24.	국방부 주관
호 주	- 한·호주 국방부간 군수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98.11.25.	
태 국	- 한·태국 국방부간 상호군수지원에 관한 시행약정	'05. 9.14.	
뉴질랜드	- 한·뉴질랜드 군수협력에 관한 약정	'07.11.30.	
터 키	- 한·터키 상호군수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08. 5.27.	
말 련	- 한·말련 해군간 합정방문시 군수 지원 상호 제공에 관한 합의각서	'03. 4. 3.	해군 주관
인 니	- 한·인니 해군간 합정상호방문시 군수 지원에 관한 시행약정서	'03. 9. 2.	
호 주	- 한·호주 해군간 합정방문시 상호 군수 지원을 위한 시행약정서	'04. 1.27.	
싱가포르	- 한·싱가포르 해군간 합정방문시 군수 지원 상호제공에 관한 합의 각서	'04. 6.14.	

\* 출처 : 신영환, 2001a. 『군수관리 I』. 대전: 해군대학, p. 67.

## 2) 함자체 정비능력 향상 및 기동화·첨단화된 이동정비반 운영

향후 기동전단의 원해작전시 정비지원은 전문기술팀에 의한 고속이동정비 지원체제 및 원격정비개념<sup>10)</sup>으로 발전되어야 하며(도종철,

2000:30), 함정 자체정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서관 중심의 부대정비체제를 핵심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고급인력 중심의 부대정비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전문고급인력 중심의 부대정비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전문 고급인력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동전단이 원해작전시 보다 향상된 장비운용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동전단이 원해작전 수행을 위한 정비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수지원함 또는 수리지원함에 정비요원을 확보하고 이동정비반을 운용하여 현장에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유사시 정비지원이 요구되는 장비별로 또는 정비소요 발생 유형별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술인력을 편성하고 정비인력이 지참·운용할 수 있는 정비장비, 계측기, 공구, 수리부속 등을 세트화하여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정비인력과 세트화된 장비 수리부속을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항공기(헬기)를 항공 이동정비반 운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VI. 결론

대한민국 해군이 2010년 2월 1일 최초의 기동전단인 제7기동전단을 창설했다는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원해에서 장기간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부대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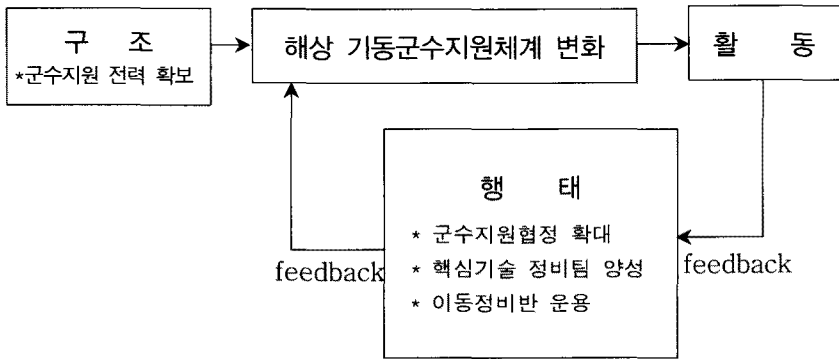
미래전 양상과 대북 및 잠재 위협을 고려해 볼 때, 기동전단이 원해에서 장기간 독립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상 군수지원이 필수적으

---

10) 원격정비개념은 원해작전중인 함정이나 타기지에 관련된 항공기 및 야전에서 장비 결함 발생시 상급 정비지원부대에 온라인으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하정비 제대간 신속한 기술정보 제공 및 수리부속 보급지원을 시행한다는 개념이다(국방부, 2008:269).

로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은 그러한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동전단 창설과 운용에 따른 한국 해군의 해상기동군수지원체제의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있어 기동군수지원전력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조적인 측면으로, 기동군수지원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행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5> 해상 기동군수지원체제 발전방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상 기동군수지원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기동전단 임무수행에 적합한 해상 기동군수지원전력의 운용이다. 기동전단은 해상에서 장기간 독립작전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기동군수전력이 필요하다. 현재 운용중인 다목적 군수지원함은 기동전단의 역할과 임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다. 따라서 앞으로 확보해야할 군수지원함은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화물이송체계와 더불어 현대화된 물류취급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해야 한다.

둘째, 구조적 측면에서 군수지원 속도향상을 위한 체제 및 전력의 운용이다. 기동전단에 대한 군수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 기동전단 운용에 따른 한국 해군의 해상 기동군수지원체계 발전방향

신속한 수송수단이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기동전단은 대양위주의 원해 작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대양에서 기동군수 실시 용이성을 고려하여 헬기와 같은 고속수단을 이용한 수직보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행태적 측면에서 제3국과 군수지원협조체제 강화이다. 기동전단이 해양에서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 활동영역은 대략 동남아시아의 해상교통로 주변 및 인도양 및 아덴만 주변국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인도양 및 아덴만 주변국가와 상호 군수지원협정의 체결, 그리고 제3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 표준(안) 정립을 통한 개정으로 한국해군의 해외 활동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 나아가 제3국에 해외 군수기지를 확보할 경우 기동전단의 군수지원체계는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행태적 측면에서 함 자체 정비능력 향상 및 기동화·첨단화된 이동정비반의 운영이다. 함정 탑재 무기체계가 첨단화·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함정 자체정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사관 중심의 부대정비체제를 장교중심 부대정비체제(핵심 기술분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기동전단이 원해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수지원함에 정비요원을 확보하고 이동정비반을 운용하여 현장에서 고속 수송수단(헬기) 이용 신속하게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군전력이 해상에서 지속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상작전세력이 재보급을 위해 육상기지에 귀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상기동군수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구조적 측면에서는 기동전단의 역할과 임무에 걸맞는 기동군수함과 수직보급 전력 확보를 통해 해상 기동군수체제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한 행태적 측면에서는 해상 기동군수체제의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을 유도한다.

군사학연구 통권 제8호

이와 같은 행태적 요인은 군수지원활동과정에서 환류(feedback)과정을 반복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상 기동군수지원체제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단행본

- 국방부. 1996. 『국방군수용어편람』, 서울: 국방부.  
\_\_\_\_\_. 2008. 『국방군수용어사전』, 서울: 국방부.  
미 해군대학, 1964. 해군본부 역. Naval Logistics. 대전: 해군본부.  
박재영. 2004. 『국제정치 패러다임』, 서울: 법문사.  
신영환. 2001a. 『군수운영』, 대전: 해군대학.  
\_\_\_\_\_. 2008. 『군수관리 I』, 대전: 해군대학.  
원찬권·최봉학. 1989. 『현대군수관리』, 서울: 병학사.  
이월형. 1997. 『군수관리론』, 대구: 공학사.  
정호섭. 2007. “군사혁신과 해군무기체계의 미래.”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의 국방비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조미니 A. H. 저. 2005. 이내주 역. 『전쟁술』, 서울: 책세상.  
해군대학. 1985. 『군수기획』, 대전: 해군대학.  
해군본부. 2004. 『기동군수지원작전교범(운용교범 해교3-7-7)』, 대전: 해군본부.  
\_\_\_\_\_. 2003. 『해군군수(기준교범 해교4)』, 대전: 해군본부.  
\_\_\_\_\_. 2007a. 『해군군수』, 대전: 해군본부.  
\_\_\_\_\_. 2007b. 『해군군사용어사전』, 대전: 해군본부.  
U.S. JCS, 1995. Doctrine for Logistic Support of Joint Operations, Washington D.C.  
\_\_\_\_\_, 2000. Joint Vision 2020, Washington D.C. 2000.  
Department of the Navy, 1995. Naval Logistics-Naval Doctrine Publication 4, Washington D.C.

2. 정기간행물 · 연구보고서

- 강광성. 2002. “근접 군수지원체제 발전방안.” 『용역연구과제보고서』, 해군본부.
- 김열수. 1999. “UN 평화유지활동의 부침: 구조적 요인과 행태적 요인.”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시정. 2009. “한국 해군의 군수지원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종칠. 2000. “해군군수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군사세계』 통권 60호, 21세기군사연구소.
- 박창권. 2003. “해군력 운용개념의 전략적 발전방향.” 『제5회 해군 전투발전 세미나 발표논문집』, 해군본부.
- \_\_\_\_\_. 2006. “미래 해군 기동전단 전력체계 및 운용 개념의 발전방향.” 『제8회 해군전투발전세미나 발표 논문집 : 미래해군 기동전단의 운용개념 및 발전방향』, 해군전투발전단.
- 박호섭. 2008. “해군의 역할과 전략 발전방향.” 『제5회 해양전략 심포지엄』, 해군대학.
- 신영환. 2001b. “대양해군건설을 위한 군수지원 발전방향.” 『전투발전연구』 제8호, 해군전투발전단.
- 이상진. 2003. “이라크 전쟁에서의 전략군수.” 『국방연구』 제46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장기덕 · 이남용 · 백재욱. “21세기 군수지원체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자96-1110-11)』, 한국국방연구원.
- 장석용. 2009. “기동전단의 협동교전능력(CEC) 구축방안.” 해군대학 졸업논문.
- 정삼만. 2002. “미래 해양전장 운영개념.” 『제4회 해군 전투발전 세미나 발표논문집』, 해군본부.

## 기동전단 운용에 따른 한국 해군의 해상 기동군수지원체계 발전방향

최석철. 2008. “성과기반군수(PBL)를 활용한 군수지원 발전방안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제34권 제2호, 한국경영분석학회.

### 3. 기타

최현수, “이지스함대… 가자 대양해군으로,” 『국민일보』 (2010. 2. 1)

전옥신, “기동전단 조기에 안정화 시킬 것,” 『국방일보』 (2010. 2. 2).

김민석, “해군 첫 기동전단 떴다,” 『중앙일보』 (2010. 2. 2)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R.O.K.  
Navy's maritime mobile logistics support systems  
based on the ROKN maritime task flotilla.

Jung, Gwan-Young\* · Cho, Bum-Sang\*\*

Established on February 1st, 2010, The ROKN maritime task flotilla has a goal to successfully cope with North Korea and other potential threats. Unlike precedents of its kind, The ROKN maritime task flotilla is expected to concentrate more on far-sea strategies than coastal strategies. In such circumstances however, the existing maritime logistics systems have limitations upon which to utterly support the operation conception of the ROKN maritime task flotilla. To ensure its efficiency, transformation of the systems is prerequisi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an adequate maritime logistics system for the ROKN maritime task flotilla by evaluating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system and foreseeing its performance necessary abilities to operate in the future.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presented problems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n the structural and behavioral sides.

First, regarding problems in the structure of maritime logistics system, the investigation pronounced the need of improvement in

---

\* Republic of Korea naval war college student officer

\*\*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full-time instructor

기동전단 운용에 따른 한국 해군의 해상 기동군수지원체계 발전방향

mobile logistics support ability and its speed. In addition, for the behavioral side, the need of improvement in logistics cooperation system and self-maintenance ability was affirmed. For the development of an adequate maritime logistics system, the study suggested the amelioration in the operation of an adequate mobile logistics support platform and the speed of the logistics using high-speed transportation such as planes for the structural side. Moreover, for the behavioral side, it recommended th enhancement of logistics cooperation system including the nations that already imported th weapon system, amelioration of self-maintenance ability, and necessity to operate mobile maintenance group.

*Key words:* Maritime mobile logistics support system, ROKN maritime task flotilla